

로버트 치죈 박사, 아모스: 사자가 부르짖으니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5부: 아모스

5:18-27, 순종이 제사가 아니라,

아모스 6:1-7, 파티 시간은 끝났다,

아모스 6: 8-14, 죽음의 악취가

백성 을 뒤덮다

이것은 아모스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치죈 박사입니다. 아모스: 사자가 부르짖으면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세션 번호 5, 아모스 5:18-27, 순종이 제사가 아니다, 아모스 6:1-7, 파티가 끝났다, 그리고 아모스 6:8-14, 죽음의 악취가 백성 위에 가라앉는다.

음, 다음 세션에서는 아모스 5장에서 중단한 부분부터 계속할 것입니다. 5장의 처음 17절을 다루었고 오늘은 18절부터 시작하지만, 되돌아가서 5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애통과 통곡의 소리로 시작했는데, 일종의 죽음의 기운이었고, 그 구절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님은 백성에게 그분을 찾고 살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분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베델이나 길갈, 브엘세바 같은 곳으로 가서 제의 의식을 통해 나를 찾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본문이 전개되면서 그분은 선을 추구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의 삶의 방식, 곧 정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제사가 아닌 순종을 원하십니다. 제의적 의식이 아닌 합법적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에는 죽음의 위협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군사적 침략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그분께로 돌아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다음 구절의 제목을 18절부터 27절까지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부분은 별개의 문학적 단위이지만, 앞부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장 구분을 할 때 이 구절들을 하나로 묶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장 18절부터 27절까지는

희생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불립니다. 어제처럼 본문을 읽고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기 전까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첫 단어는 "화(woe)"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일 것이다. 우리는 이전 세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날은 주님께서 강력한 전사로서 권능으로 오셔서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이 예언의 주요 수신자인 북왕국은 여호와와 그의 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주변 모든 나라에 임할 심판을 묘사하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에게 직접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요 표적이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있다. 그 날이 빛과 구원, 그리고 더 나은 안전과 번영을 가져다줄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둠의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에게서 도망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길거리에 나갔는데 사자가 마을로 들어와서 도망가고 싶어서 달려갔는데 꿈을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사자든 꿈이든 동전 던지기로 했어요. 둘 다 꽤 사납고 치명적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그가 자기 집에 들어온 것처럼요. 그래서 그는 사자와 꿈을 피해 집으로 달려가 안도하며 벽에 손을 얹었지만, 뱀에게 물렸어요.

그리고 이건 히브리어 '나카쉬'입니다. 알 수 있다고 해서 항상 독사인지는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독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자에게서 도망치려고 하면 꿈을 만나게 되고, 꿈에게서 도망치려고 하면 뱀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그들의 집에 뱀이 있었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네, 메소포타미아의 징조들을 통해 뱀이 집, 지붕, 그리고 천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현실적인 이야기이며, 요점은 심판이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9장 후반부에서 이 점을 다시 강조할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되지 않겠습니까?

밝은 빛줄기 없는 칙흑 같은 어둠. 그래서 그분은 그들의 기대를 뒤엎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날이 빛의 날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날은 어둠의 날이 될 것이고, 너희는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 단어, 화(woe)로 돌아가 보자. 히브리어로 '호이(hoy)'다.

선지자들이 심판을 선포할 때, 종종 이 단어로 심판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문학적 형식을 연구하는 비평가들은 이것을 화의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건 호이 신탁이에요. 히브리어로는 '호이'예요. 호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아, 오, 헤이' 같은 감탄사예요.

이런 짧은 단어들을 감탄사라고 합니다. 사실 감탄사죠. 이사야 55장에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울음을 터뜨리려는 의도로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그 문화권에 존재했던 이 단어의 특별한 용법을 취하여 심판의 말씀에 사용합니다. 열왕기와 예레미야서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이것이 애곡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이 감탄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저는 그의 시신 위에 서서 아비에게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슬프군요, 아버지.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공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단어가 될 겁니다.

'hoy'라는 단어를 들으면 문맥상 중립적인 의미로만 쓰인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 죽음이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누가 죽었는지, 그리고 선지자들이 여러분에게 묘사한 내용은 무엇인지요. 그들은 국가의 죽음, 지도부의 죽음을 미리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을 알고, 요점을 강조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제가 NET 성경 번역을 할 때, 가끔 '화'를 이렇게 번역하곤 했습니다. 좀 더 의역하자면,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는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번역해서 감탄사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제 말은, '화'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단어가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켰을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죽음의 주제가 5장 1절부터 17절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세요. 이 구절들은 애통과 애통으로 시작해서 주님께서 애굽에서처럼 지나가시며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그분께 순종한다면, 주님의 날을 피할 수 있고, 적어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미워합니다. 5장에서 우리는 미움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북왕국 백성, 특히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정의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땅히 자신의 죄를 미워해야 하지만, 정의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주님께서서는 이제 그들에게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종종 이런 일을 합니다. 핵심 단어를 하나 정하죠. 우리는 그것을 핵심 단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반복해서 다양한 의미와 방식으로 사용하죠. 결국 그 구절들을 엮어 하나의 주제를 만들어낼 때까지요. 당신은 정의를 싫어합니다. 제가 뭘 싫어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난 당신네 종교 축제를 정말 싫어해요. 정말 싫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저 형식적으로 행동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주님께서 율법에 명하신 종교적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임은 나에게 역겨운 일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정의를 싫어하는군요. 나는 당신의 위선을, 당신의 공허하고 공허한 종교를 싫어합니다.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아. 그러면서도 공허한 의식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보이려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는 그 축제들을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축제들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순종할 때, 네,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기념하기 위해 그들에게 이런 축제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자기 이름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리고 그것은 거짓이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과 소제를 가져온다 해도 나는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제가 이 구절의 주제를 찾게 된 것입니다. 제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화목 제물을 가져온다 해도, NIV는 "나는 그것들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번역합니다.

저는 인터넷 번역이 더 마음에 들어요. 히브리어 원문에 더 충실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살찐 송아지로 드리는 화목 제물은 내가 좋아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더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NIV가 그 부분에서 너무 간략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NIV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헌금은 받지 않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친교를 위한 평화 헌금 말입니다.

네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소서. 네 수금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이다. 음악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서운 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형제자매, 즉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한, 주님께서는 그런 형태의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음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수직적인 것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것도 원하십니다. 예배에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흥미로운 원칙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종교적 축제를 원하십니다.

그는 제물을 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의 노래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위선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그는 앞서 언급했던 주제로 다시 돌아와 정의라는 주제를 다시금 강조합니다. 이는 아모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아모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정의라고 말할 것입니다.

호세아의 가장 큰 문제는 우상 숭배입니다. 너무 단순화한 표현입니다. 호세아는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우상 숭배를 강력히 비난합니다.

아모스는 불의를 강하게 비난하지만,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오늘날 선지자들이 백성들과 마주했을 때 직면했던 두 가지 주요 문제입니다.

하지만 24절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인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강물처럼, 공의를 마르지 않는 시냇물처럼 흐르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그가 말하는 것은 영원한 강, 마르지 않는 강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항상 정의를 원하시고, 마치 마르지 않는 시냇물처럼 흘러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와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는 와디(계절성 하천)가 있는데, 이는 계절에 따라 갑자기 범람할 수 있는 하천입니다. 우기에는 물이 많이 흐르지만, 결국 말라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영원하고 결코 마르지 않는 시냇물을 원하며, 정의 또한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구절은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번역본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말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25절은 NIV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의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질문입니다. 그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에게 제사와 예물을 가져왔느냐?" 글썄, 그가 그들의 제물을 거부하는 맥락에서 보면, 그 질문에 대한 "아니오"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제사와 예물을 주셨고, 그들이 제물을 바치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겠지만, 저는 그 질문에 '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문맥에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음, 그건 아니지만, 제가 가장 원했던 건 아니었어”라고 해석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부터 24절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초기에는 제물과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순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항상 제사보다 순종에 더 관심을 가졌는데, 그것이 여기서 중요한 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절과 26절을 모두 그 수사적 질문의 일부로 간주한다는 당신의 견해는 꽤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2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에게 제사와 예물을 바쳤느냐? 그리고 너희 왕의 신전, 너희 우상의 받침대, 너희가 스스로 만든 너희 하나님의 별을 높이 들었느냐? 네, 제사는 처음부터 존재했습니다. 제물 말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그것들을 원했고, 광야에서 당신이 제게 그것들을 제물로 바쳤을 때도 그랬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다는 건 알지만, 그 일은 시나이 산에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광야에서 제가 제물과 제사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주었지만, 그 시점에 우상 숭배와 결합했습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제물을 바치면서도 정의에는 관심이 없고, 더 나아가 네 제물을 다른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과 섞고 있다. 너는 다신교적이다. 나와 함께 다른 신들을 섬기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서 이런 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제물과 희생 제사가 아주 일찍 들어왔고, 저는 그것들을 원했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되었고, 광야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27절은 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유배 보내리라. 여호와와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이지요 만군의 하나님이지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그분의 이름이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불의와 우상 숭배에 대한 정죄가 언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유배 보내겠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부분을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3장부터 6장까지의 전체 제목입니다. 유배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그들의 구원 역사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원 역사는 주님께서 족장들에게 땅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모세가 이집트로 가서 모세의 인도를 통해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 실제로 실현됩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넌다.

일종의 궁극적인 구원 사건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들은 시나이산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아들이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에게 땅을 주실 수 있는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세대가 들어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주님을 믿었던 다른 사람들의 지도력을 통해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다윗을 통해 확장됩니다. 다윗은 제국을 확장하고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시작하신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여러분이 언약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언약에는 저주와 심판의 위협이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언약의 저주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 심판은 기근, 가뭄, 또는 인구를 앗아가는 침략 등 다양한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도시들은 포위당하여 여러분이 너무 절박해져서 식인 풍습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추방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최후의 형벌입니다. 만약 당신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당신을 유배지로 보내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당신은 독립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땅에 있지 않으며, 구원의 역사는 뒤틀리고 역전되었습니다.

물론, 아모스서 끝부분에서 보게 되겠지만, 좋은 소식은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40-55장과 다른 구절에서도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시 속박에서 인도하여 그 땅으로, 그리고 아골 골짜기, 환난의 골짜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간이 여리고에서 물건을 훔쳐서 정복 전체를 위태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희망의 문이 될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갱신되고 완성될 것이지만, 그동안 여러분은 모든 것이 풀리고 뒤집히는 것을 보는 세대의 일원이 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다시 한번 씩씩한 분위기로 끝납니다. 6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는 아모스의 각 주요 부분에 대한 원칙을 생각해 왔고, 5장의 두 가지 주요 연설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럼, 제 요약과 제 5장에 대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장이 조금 더 긴 이유는 5장이 27절로 조금 더 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각 단원의 주요 주제를 모두 통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식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기서 관계란 그분과 이웃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종교 활동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그분의 윤리적 기준을 어기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4장에 언급된 주제를 좀 더 폭넓게 다루고 반복한다면, “나를 찾으면 살리라”는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준을 어기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심판을 피할 기회를 주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약에 추가적으로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호소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단순히 직설적인 판단을 내리는 말이 아닙니다.

포럼 비평가들이 “나를 찾고 살라”라고 부르는 권면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명령을 내리면 긍정적인 결과가 따릅니다. 자, 이제 이 책의 중간 단원의 마지막 부분인 6장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6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14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파티 타임”이라고 부르는 처음 일곱 절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장의 후반부, 8절부터 14절까지, 죽음의 악취가 패역한 백성을 덮칩니다. 따라서 이 짧은 장에서도 다시 한번 핵심은 심판입니다. 자,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첫 단어, “화 있을진저, 호이”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5장 18절에 ‘호이’가 등장했고, 여기서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5장 전반부에 나오는 죽음의 위협 바로 뒤에, 순종을 통해 생명을 얻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재앙의 예언, 즉 장례 의식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시온에서 안일하게 지내는 너희에게 다시 한번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러니까, 시온에서 안주하는 자들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산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오는 가장 중요한 민족의 명사들아. 그분은 이 수도들의 지도부를 겨냥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쯤에서 잠시 멈춰서 “시온이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요.”라고 물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모스의 주된 메시지는 북왕국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는 북쪽으로 여행합니다. 7장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베델의 제사장과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의 주요 메시지는 요셉 지파, 즉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루살렘이나 유다를 메시지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탁에서 유다는 이스라엘 바로 앞에 일곱 번째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는 다가올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아모스가 그들을 포함한 것은 아마도 그들이 유다의 지도부와 예루살렘의 지도부처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가 사마리아의 지도부에게 하는 말을 들어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도 적용되기를 원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그가 북왕국에서 사역을 마친 후 드고아로 돌아와 어느 정도 선지자로서 계속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고 싶었고, 어쩌면 주님께서 나중에 이 부분을 추가하도록 인도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편집본일 필요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아모스가 유다 백성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다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쪽이든 여기서는 일리가 있지만, 처음에는 조금 놀랍습니다. 시온조차 사마리아처럼 보이기 시작했기에, 그분은 그들도 여기에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산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여러분, 이 시기가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실을 간과하고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장의 뒷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실제로 몇 차례 군사적 승리를 거두었고, 그래서 꽤 기분이 좋았습니다. 안전하고 번영했다고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원수를 멸하실 때 더 큰 안전을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지금은 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와서 "아니, 이건 거짓된 안전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이런 성공은 헛된 꿈일 뿐입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해 있습니다.

2절은 해석가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또 다른 구절입니다. "칼네로 가서 그것을 보라. 거기서 대함 마트 로 가라."

이들은 아람 사람들의 성읍들이고, 그다음 블레셋의 갓으로 가십시오. 이전 신탁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모스가 알고 있었고, 그 성읍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두 왕국보다 더 나은가요? 그들의 땅이

당신의 땅보다 더 넓습니까? 이 질문은 수사적인 것 같아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지도자들이 자기 백성에게 하는 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중요성과 힘을 자랑하는 겁니다. 북왕국이 언급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넷 성경처럼, 저도 잠깐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넷 성경은 백성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음, 그건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고, 넷 바이블도 속이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덧붙인다고 하면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지 설명합니다. 제 말은, 지도자들이 여기 사람들에게 자기 땅을 자랑하며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봐, 다른 곳들을 봐. 우리는 그들보다 더 위대해. 우리는 그들이 겪었던 부정적인 판단을 겪지 않을 거야."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인데,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방금 지도자들을 비난하셨는데,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주님께서 3절에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텐데, 왜 2절에서는 안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 요점은, 칼네로 가세요, 그레이트 함 마트 로 가세요, 가드로 가세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 두 왕국보다 더 나은 처지입니까, 아니면 더 나은 처지입니까? 제 생각에 그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너희가 내 언약 백성이고, 3장에서 내가 온 땅의 민족 가운데 너희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다른 민족들과 다르지 않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특별하고 축복받은 유일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희는 단지 여러 민족 중 하나일 뿐이고, 내가 모든 민족의 주권자이므로 너희는 통행권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언약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심판을 내렸듯이, 그 심판은 훨씬 이전, 사실 9세기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아시리아에서 티글랏-빌레셀 3세가 오면 심판이 다시 올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그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바꿀 수 있어요. 당신들의 영토를 줄일 수 있는데, 아시리아인들이 그 직후에 들어왔을 때 그가 한 것과 똑같아요. 그들은 북쪽 왕국의 모든 지역을 속주로 축소하고, 이 작은 나라를 바로 중앙에 남겨 두었죠.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특별한 지위가 당신을 내 심판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경험한 성공, 당신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번영, 그리고 당신이 거둔 군사적 승리가 당신을 다른 나라들과 구별해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대한 제 생각은, 주님께서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재앙의 날을 연기하고 공포의 통치를 가까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실 테러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데, 하마스, 하마스, 폭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그들이 심판의 날을 미루고,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고려하려 하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국 내 폭력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 사람들에게 저지르고 있는 일, 즉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매우 취약하게 만드는 일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경우,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아이들이 이러한 억압적인 조치들 때문에 죽었다고 확신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폭력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이 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생활 방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름 별장, 겨울 별장, 그리고 상아로 이에 대한 암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상아로 장식된 침대에 누워 소파에서 느긋하게 쉬고, 좋은 양고기와 살찐 송아지를 먹으니, 꽤 잘사는 셈이군.

응, 꽤 부유하고 잘나가잖아. 좋은 침대랑 소파에서 편히 쉬고, 음식도 제일 잘 먹고.

다윗처럼 하프를 튕기시네요. 이건 좀, 좀 비꼬는 말인 것 같아요. 다윗처럼 악기를 즉흥적으로 연주한다고 생각하시다니.

그러니까 악기를 가지고 놀고, 스트러밍하고, 노래를 작곡할 시간이 있는 거죠. 와인을 잔뜩 마시고 최고급 로션을 바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국가의 수장이라고, 국가의 수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최초이자 가장 눈에 띄는 브랜드입니다. 최고의 로션, 그 중에서도 최고이자 가장 중요한 로션을 요구합니다. 최고를 위한 최고만이 여기의 철학입니다.

너는 최고급 로션을 바르면서도 요셉의 몰락을 슬퍼하지 않는다. 너는 요셉의 몰락을 슬퍼하지 않으니, 가장 먼저 유배를 가게 될 것이다. 네 잔치와 빈둥거림은 끝날 것이다.

요셉의 파멸, 그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때로는 이중적 의미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작용하는 거죠.

한 가지 견해는 요셉의 몰락이 요셉의 도덕적 몰락을 의미하며, 요셉은 북왕국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을 학대하는 나라가 도덕적으로 몰락하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심판으로 요셉이 멸망할 것을 슬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둘 중 하나를 택하는 편인데, 선지자들은 시인이고, 매우 수사적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경우에는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도덕적 파멸은 국가적 재앙과 요셉의 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중들이 이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모스, 정말, 정말 교묘하군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장 먼저 유배를 갈 자들 가운데 속할 것이다. 너희의 잔치와 유유자적한 생활은 끝날 것이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행하는 또 다른 일이다.

그들은 말장난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어에 어근이 있다고 말했죠. 아시다시피, reish alashin , 즉 '머리'를 뜻하는 ' rosh '가 있습니다 . 머리라든 단어는 무언가의 첫 번째, 가장 주목할 만한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어근에서 유래한 단어도 있는데, '레이쉬트(reishit)'입니다 .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 베레쉬트(bereshit)', 즉 '태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쉬트'는 '태초'라는 개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시작일 수도 있고, 질적인 최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그 근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나라의 왕 이다 . 너희는 최고이자 가장 중요한 엘리트들이며, 너희는 최고다."

그리고 당신은 심지어 로션을, 최고급 로션을, 와인을 한 그릇씩 마시며 몸에 바를 최고 품질의 로션을 요구합니다 . 글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이 비꼬는 표현은 7절에서 흘러나옵니다. 누가 유배 갈 때 제일 먼저 줄을 설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줄의 맨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당신은 줄의 맨 앞에 서게 될 겁니다 .

로쉬(rosh) 행 에서 바로 앞에 서게 될 겁니다 . 로쉬 행에서 바로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목표 언어인 영어는 한계가 있어서 히브리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 구절 모두에서 "처음"을 쓰면, "로션"의 "처음"이 될 수도 있겠네요. "로션"의 "처음"은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사람"의 "처음"은 그래요. 7절에서는 잘 통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최고를 위한 최고"라는 뜻이죠.

음, 다들 망명길에 오르지만, 네가 제일 먼저 줄을 설 수 있어. 선두에 설 수 있어. 맨 앞줄에 서서 망명길에 가장 먼저 설 수 있어.

그래서 범죄의 차원에 맞는 형벌도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탈리온 적 정의'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는 선지자들에게도 존재하지만, 항상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탐욕과 사람들을 착취하여 얻은 과도한 부 때문에, 그들의 형벌은 범죄에 상응하는 수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장난을 통해 패트릭 밀러라는 학자가 오래전에 훌륭한 책을 썼습니다. 작은 책이지만, 전문서에 가까운 책으로, 선지자들의 죄와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심판이 죄에 상응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그들에게 합당한 형벌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과 구별되어 최고의 삶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망명자들의 대열에서 바로 그런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죽음의 악취가 사악한 백성 위에 깃든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8번부터 시작해 볼까요? 14번까지 읽어 볼게요. 저는 NIV 번역본을 읽을 예정인데, 몇 군데에서 제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NIV 번역본을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절 하나하나를 읽어 나가면서, 10절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확실한 것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실 때, 사실 히브리어로는 그분의 생명, 그분의 영혼, 어쩌면 그분의 '네페쉬'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두고, 그분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는 항상 살아 계십니다. 그것은 변함없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맹세하는 맹세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야곱의 교만을 미워하며 그의 요새들을 싫어한다. 내가 이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위선적인 예배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그들의 교만을 미워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교만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의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에서도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잠언에서 주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그분은 교만한 눈빛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얻든 간에 이 모든 부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심지어 주변 나라들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함으로 움직이고, 주님은 그들의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새들을 혐오하시는 것은, 그것이 그들의 교만과 스스로를 높이고 보호하려는 시도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넘겨주겠습니다.

꽤 포괄적이고 완벽한 말씀이시네요. 한 집에 열 명이 남아 있으면 그들도 죽을 겁니다. 그리고 친척이 온다면, 지금 우리는 죽음의 여파 속에서 살고 있는데, 마치 그들이 모두 죽을 것처럼 들리지만, 예언자들은 종종 이런 일을 하지만, 살아남는 소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신을 집 밖으로 옮겨 태우러 온 친척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같이 있니?”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는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해. 주님의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 돼. 그분이 우리에게 더 큰 심판을 내리실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단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명령을 내리셨으니, 칙령을 내리셨으니, 큰 집을 산산이 부수실 것이다.

전형적인 큰 집은 거기에 있고, 작은 집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이것이 심판에 대한 슬픈 사실 중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지도부를 겨냥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도자들의 행동이 스며들어 모든 사람의 태도를 타락시키고, 때로는 심판이 임할 때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조차도 심판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하박국서를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의 문제는 “주님, 바벨론 사람들을 끌어내시려고 하시는 겁니까?”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유다의 불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악합니다. 당신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의롭고 죄 없는 자들이 신실함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이해했듯이, 믿음으로 말입니다. 믿음과 신실함은 함께합니다. 의로운 남은 자들은 보존될 것이며, 하박국서 마지막 부분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좋아요, 문제가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기근 직전이 될 것입니다.”

좋지는 않을 것이고, 의로운 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그분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험난한 지형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산양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죽음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압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집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향을 미치고 부수적인 피해를 입히며 작은 집을 산산조각 냅니다.” 그리고 그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번역본은 여기서 대안적인 해석을 취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옳고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말이 바위 절벽에서 달리나요? 바위 절벽이나 절벽에서 말을 달리거나, 말을 타거나, 전차를 타려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건 미친 짓입니다. 기괴합니다.

그런 건 절대 못 보셨을 텐데, 그런데 전통 문헌에 "소로 밭을 갈 수 있느냐?"라고 나와 있죠? 네, 맞아요. 하지만 좀 까다롭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소"를 두 단어로 나누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로 바다를 갈 수 있느냐?" 아니요.

아무도 쟁기를 들고 물속으로 나가 소 몇 마리에 매달아 바다를 갈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괴하고 미친 짓이죠.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불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정의를 독으로, 의의 열매를 쓴맛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정의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정의가 구현되는 것을 보면, 제가 고전 서부극의 예를 들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 주제는 대개 정의가 결국 승리하고 악당들이 그 정의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당이 되지 마세요. 법이 여러분을 쫓을 테고, 여러분이 그 정의를 차지할 테니까요. 정의는 우리가 기분 좋게 느끼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정의와 의의 열매를 독이 있고 쓴맛이 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고, 그것은 왜곡된 것입니다.

정의는 결코 뒤집히거나 왜곡되어 독이 되고 쓰라린 무언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절벽에서 말을 달리게 하거나 소로 바다를 갈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친 짓이고, 이 경우에는 도덕적 광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앞서 언급된 다른 것들은 미친 짓이고 자기 파괴적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도덕적 광기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기를 죽이겠다고 결정할 때, 아기를 죽이겠다고 결정하는 건, 지금 아기를 낳는 게 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짓을 할 때, 그건 신의 눈에는 정의, 옳은 것을 독이 되고 쓰라린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아기가 아기가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와 거짓된 전제를 통해 그런 행동을 옹호합니다.

그럼 왜 죽이는 거죠? 자라고 있다면 살아 있는 거잖아요. 자라고 있지 않다면 걱정할 필요 없으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며 "로다바르 정복을 기뻐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어 원어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히브리어를 공부한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아차렸죠. 로 - 다바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장소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사기를 치고 기뻐하는 거야... 로다 바르 라는 곳을 정복했지 . 사실 아무것도 정복하지 못했어. 네 성공은 아무 의미도 없어.

바보의 금과 같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군사력이 다가올 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주지는 못할 겁니다. 당신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카르나임을 차지하지 않았나?"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카르나임을 보면 , 그것은 분명 장소일 겁니다. 네, 그것은 장소이고, 실제로는 이중 형태입니다.

히브리어는 무언가 두 개를 나타낼 때 이중 형태를 사용합니다. 동물의 뿔처럼 '뿔'을 뜻하는 ' 케렌 '이라는 단어를 '두 개의 뿔'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카르나임이라는 장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그들은 카르나임을 강력한 힘을 가진 장소로 여겨 '두 개의 뿔'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라르나임을 정복 했습니다. 두 개의 뿔을 정복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 들소가 자신을 방어하고 다른 소를 물리치는 데 사용하는 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약성서에서 뿔은 종종 힘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와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나의 힘이시며, 소가 원수를 들이받아 죽이듯이 나의 원수를 물리치는 능력이십니다. 당신은 로다 바르 와 가르나임을 차지했다고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두 뿔을 차지했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당신은 그분을 맞설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다시 한번, 만군의 주 하나님입니다. NIV에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번역할 때는 만군의 주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분이라는 표현도 괜찮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뜻인데, 그들은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지만, 저는 최근 번역본들 중 일부를 더 좋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군국주의적 맥락에서 군대를 이끄시는 분으로, 그리고 그분은 모든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진정한 전사라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한 나라를 일으키리니, 여호와께서 한 나라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참고로, 그 나라는 아시리아입니다.

몇 년 안에 아시리아인들은 우리 제국을 서쪽 지중해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결정할 것입니다. 살마네세르가 지난 세기에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움직이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다는 8세기, 701년에

용서받았고, 주님은 예루살렘을 용서하셨지만 결국 예루살렘은 파괴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끝까지 압제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아람 근처 북쪽에 있는 하맛 입구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아라바 계곡까지 그들을 압제 할 것입니다. 심판은 온 나라에 미칠 것이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에도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온이 언급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가올 심판에서 유다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쪽 왕국을 심판하시면 유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고 아시리아인들은 북쪽 왕국에서 멈추지 않고 유다로 넘어올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6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몇 가지 원칙을 도출해 보았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는 매우 짧고 간결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를 적극적으로 대적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원칙이며,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원칙입니다. 주님은 교만을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를 적극적으로 대적하십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때는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반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미워하시고, 그 미움에 따라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도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물론, 이는 단순히 우리 관계에 대해 좋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뜻에 따라 행동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것은 단순히 감정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사랑을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이 장은 그 교만이 그들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자세히 설명하며,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대적하여 구원의 역사를 뒤집으실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돌이키지 않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행태를 진정으로 혁신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다음 강의에서 7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로버트 치즈 박사님의 아모스서 강의입니다. “아모스: 사자가 부르짖으니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이번 강의는 5번째 세션으로, 아모스 5장 18-27절 “순종이 제사가 아니라”, 아모스 6장 1-7절 “잔치는 끝났다”, 그리고 아모스 6장 8-14절 “죽음의 악취가 백성을 덮는다”입니다.